

# 매일묵상일기

## 가정에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에배자료

### 일상의 중요성

2026년 2월 21일(토)

- 찬송 ..... (368장) ..... 다함께
- 기도 ..... 가족 중에서
- 성경 ..... (마 15:29~39) ..... 다함께

“38.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던라 39.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마 15:38~39)

- 묵상자료 ..... 인도자

예수님께서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일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은 경이로운 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32.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던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33.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빈들에 무슨 식당이 있겠습니까? 있다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음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초월자가 되심을 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낙심한 경우는 없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 물으셨습니다. “34.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34.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신 후 빵 일곱 개와 2어 마리의 물고기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모여 있던 무리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모두가 충분히 먹은 후에 은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주었는데, 놀랍게도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먹은 사람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38.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던라.”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비록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억의 현장이지만 무리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현장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하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 기도 .....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비록 은혜의 현장은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간직하고 일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 다함께